

25 일차

매일 매일 꾸준히!

하루는 짧지만 그 하루가 모이면
당신의 생각 그 이상의 것이 된다.

(1~3) 다음은 ‘학생들의 안전한 자전거 통학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실시한 토의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지금까지 자전거 통학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김○○ 학생, 손△△ 학생, 전□□ 학생의 순서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 우리 학교 앞은 자동차와 자전거, 그리고 학생들이 들어오는 길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교시간만 되면 서로 뒤엉켜 자전거 사고의 위험성이 큼니다.

손△△: 학생들의 자전거 운전 습관도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골목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거칠게 운전하거나 자전거를 타면서 스마트폰을 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어폰을 귀에 꽂은 채 자전거를 타다가 자동차 경적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 두 분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 외에도 학생들이 자전거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도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자전거 관리 소홀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전□□: 타이어나 브레이크 상태를 확인하지 않거나 라이트가 제대로 켜지는지 점검하지 않은 채 야간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도 꽤 있습니다. 이런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회자: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 이번에는 문제의 원인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 저는 관련 행정기관에 학교 진입 골목에 자전거 전용 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손△△: 학생들의 올바른 자전거 운전 습관을 기르기 위해 안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동영상 시청하는 것을 위주로 안전 교육을 했는데, 거기에 더해 안전 교육 전문가를 초빙해 실습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제 생각에는 학생회에서 자전거 점검의 날을 지정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자전거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고, 또 캠페인 활동을 실시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사회자: 지금 전□□ 학생은 자전거 점검의 날을 지정하고 캠페인 활동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고, 앞서 두 분은 자전거 전용 도로 설치 요구와 안전 교육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제는 이들 대안이 적절한지 논의해 보겠습니다.

전□□: 학교 앞 진입 골목은 차량 한 대도 간신히 지나갈 정도로 좁은데, 거기에 자전거 전용 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그것보다는 손△△ 학생이 말한 것처럼 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학교 차원에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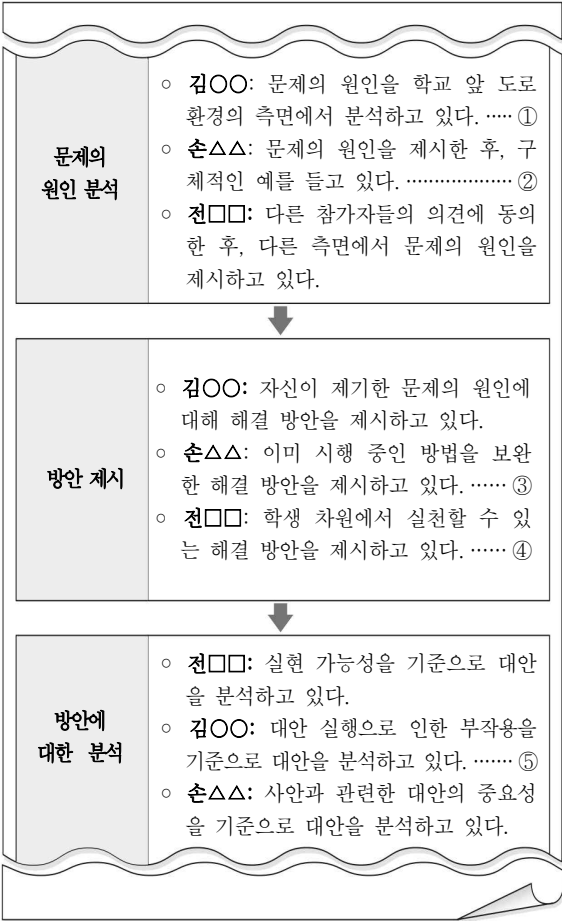
김○○: 자전거 전용 도로 설치가 현실적으로 무리라면, 안전 교육을 하면서 자전거 관리에 관한 캠페인도 함께하면

안전 교육만 할 때보다 자전거 사고를 더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겠네요.

손△△: 두 분 말씀에 동의합니다. 특히 자전거 점검은 학생들의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니까 자전거 점검의 날을 지정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좀 더 수렴한 후 다음 토의 시간에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의를 마치겠습니다.

1. 토의 절차에 따라 위 토의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 위 토의를 진행한 사회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토의 참가자의 발언을 요약·정리한 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 ② 토의를 진행하기 위해 토의 참가자의 발언 순서를 지정하고 있다.
- ③ 다음 토의에서 논의할 내용을 안내한 후 토의를 마무리하고 있다.
- ④ 토의 참가자의 발언을 듣고 추가 질문을 통해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 ⑤ 토의 참가자의 발언이 주제에서 벗어남을 지적하며 토의 주제를 환기하고 있다.

3. 다음은 토의를 들은 후 청중이 보인 반응이다. 토의를 고려하여 청중의 반응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청중 1:** 지난주에 학교에 가다가 자전거에 부딪힐 뻔했어. 스마트폰을 보면서 자전거를 타던 학생이 지나가던 나를 미처 못 본 거지.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학생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
- 청중 2:** 안전 교육의 방법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도 있으면 좋았을 텐데.
- 청중 3:** 그동안 난 자전거 관리에 대해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자전거 관리도 참 중요하다는 걸 이번 토의를 통해 알게 됐어. 앞으로 자전거 점검을 정기적으로 해야겠어.

- ① 청중 1의 반응으로 볼 때, 자신이 겪은 일을 떠올리며 손△△ 학생이 말한 문제의 원인에 대해 공감하고 있군.
- ② 청중 2의 반응으로 볼 때, 손△△ 학생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군.
- ③ 청중 3의 반응으로 볼 때, 전□□ 학생이 제시한 대안을 듣고 자신이 이전부터 중시했던 자전거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을 보완하고 있군.
- ④ 청중 1과 청중 2의 반응으로 볼 때, 청중 1은 청중 2와 달리 안전 교육이 필요하다는 측면에 동의하고 있군.
- ⑤ 청중 2와 청중 3의 반응으로 볼 때, 토의의 내용이 청중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볼 수 있군.

[4~5] (가)는 발표 준비 과정에서 학생들이 나는 대화의 일부이고, (나)는 수업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가)
- 학생 1:** 지난번에 발표 제재는 숨어 있는 동전을 사용하지는 취지의 '범국민 동전교환운동'으로 정했는데, 발표문을 어떤 방향으로 써야 할까?
- 학생 2:** 사전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반 친구들 대부분이 범국민 동전교환운동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정보를 전달하면서 친구들의 참여도 유도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
- 학생 3:** 맞아. 범국민 동전교환운동에 대한 정보가 친구들에게 유익할 거야.
- 학생 1:** 그러면 여기 우리가 찾아온 자료 중에 어떤 걸 사용할까?
- 학생 3:** 음, 여기 이 표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동전을 훼손한 사람을 처벌했다는 이 기사는 우리 발표 방향과는 안 맞는 것 같아.
- 학생 2:** 그러네. 그럼 어떤 자료들이 더 필요할까?
- 학생 1:** 음, 일단 이 운동에 대해 설명한 기사문이나 사람들의 참여율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 학생 3:** 그것도 좋고, 한 해에 폐기되는 동전의 양이나 동전을 만들 때 드는 비용에 관한 자료도 좋을 것 같아. 일단 자료를 더 많이 준비해서 다시 모이자.
- (나)
- 여러분, 한번쯤은 서랍이나 가방에 아무렇게나 놓아둔 동전을 발견한 적이 있으시죠? ㉠ 저 역시 얼마 전에 책상을 정리하다가 서랍 구석에 놓여 있는 동전들을 발견했는데요, 아무래

도 교통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동전은 이렇게 구석구석 숨어 있는 화폐가 꽤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 은행에서는 매년 이렇게 숨어 있는, 사용하지 않는 동전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동전을 지폐로 교환해 주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범국민 동전교환운동'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동전을 사용하지 않고 저금통이나 책상 서랍 등에 오랫동안 넣어 둬으로써, 시중에 동전이 돌지 않아 매년 새로운 동전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표를 보여 주며)㉢ 한국은행에서 만든 자료인데요, 잠깐 여기 그래프를 보시죠. ㉣ 2014년만 해도 500원 동전이 7천 6백만 개, 100원 동전이 2억 9천만 개가 새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동전의 액면 금액보다 그 동전을 만드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점입니다. 10원짜리 동전의 경우 액면 금액은 10원이지만, 제작 비용은 동전 하나에 40원이 넘는다고 하네요. 이렇다 보니 낭비되는 비용은 어마어마한 액수가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범국민 동전교환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외에도 동전 다시 쓰기를 생활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스름돈으로 받은 동전을 저금통이나 서랍에 보관하지 말고 휴대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동전 모으기'에 동전을 기부하면 사랑도 실천할 수 있고 동전도 원활하게 유통되겠죠.

㉤ 여러분이 이런 작은 실천에 동참해 주신다면 동전의 제작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도 서랍이나 가방에 숨어 있는 동전을 한번 찾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4. (가)의 발표 준비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 보 기 —
- ㄱ. 발표를 준비할 때에는 발표의 목적을 분명히 한다.
 - ㄴ. 수집한 자료 중에서 발표 주제에 맞는 것을 선정한다.
 - ㄷ. 발표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청중의 배경지식을 확인한다.
 - ㄹ. 발표 과정에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생각해 둔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ㄷ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5.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청중의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 발표자의 경험을 언급하고 있다.
- ② ㉡: 중심 화제의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다.
- ③ ㉢: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의 출처를 밝히고 있다.
- ④ ㉣: 발표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수치를 사용하고 있다.
- ⑤ ㉤: 청중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기대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6~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 협동 작문 과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설득적 글쓰기
- 모둠원이 정한 중심 소재: 휴대용 물통 사용
- 글의 주제: 휴대용 물통 사용이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과 그 해결 방안

[글의 초고]

음료 판매점 등에서 사용되고 버려지는 일회용 컵은 우리나라에서만 연간 130억 개 이상이라고 한다. 그런데 일회용 컵 하나를 만드는 데 11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며, 1톤의 컵을 만들려면 20년생 나무를 20그루나 베어 내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최근 들어 환경보호 차원에서 '텀블러'로 불리는 휴대용 물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휴대용 물통의 판매도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한다. 그러나 여전히 휴대용 물통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휴대용 물통의 판매가 증가하는 데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 글에서는 휴대용 물통의 사용이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과 그에 따른 해결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휴대용 물통의 사용이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으로, 먼저 사용상의 불편을 들 수 있다. 휴대용 물통을 계속 들고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과 사용 후 세척의 어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휴대용 물통 사용을 주저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휴대용 물통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도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소비자들은 휴대용 물통에 뜨거운 물이나 음료를 넣으면 환경호르몬 물질이 배출되어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휴대용 물통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A]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사용상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휴대용 물통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사용 후 세척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휴대용 물통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음료 판매점들이 세척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장하는 것이다. 또한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휴대용 물통에서 환경호르몬 물질이 검출되지 않거나 검출되더라도 미량이 검출되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한다. 이러한 휴대용 물통의 안전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들의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B]

6. <보기>는 '글의 초고'를 작성하기 전에 모둠원들이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 ~ ㉣ 중, '글의 초고'에 활용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모둠원 1: 독자들이 실태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게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며 글을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 일회용 컵 사용과 관련한 통계 자료가 있던데, 그것을 활용하여 글을 시작하는 건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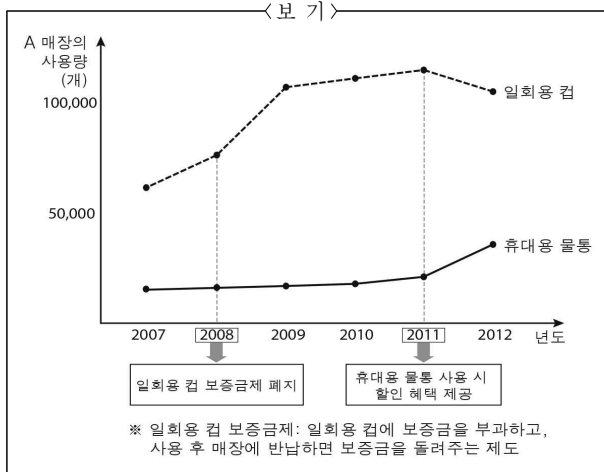
모둠원 2: 그래, 좋아. 그리고 ㉡ 휴대용 물통을 직접 사용하면 서 좋았던 점을 제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모둠원 3: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여기 자료에 있는 ㉢ 휴대용 물통을 사용할 때의 불편한 점과 ㉣ 휴대용 물통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휴대용 물통의 사용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제시하면 될 것 같아.

모둠원 4: 나도 비슷한 자료를 봤어.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 휴대용 물통 사용자들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 휴대용 물통의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면 어떨까?

- ① ㉠ ② ㉡ ③ ㉢ ④ ㉣ ⑤ ㉤

7.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A]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휴대용 물통에 대한 안전성이 입증되어 사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을 제시하기 위한 근거로 삼는다.
- ②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음료 판매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을 제시하기 위한 근거로 삼는다.
- ③ 휴대용 물통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음료 가격 할인과 같은 혜택을 제공해야 함을 제시하기 위한 근거로 삼는다.
- ④ 일회용 컵의 보증금제를 폐지하면 친환경 소재의 휴대용 물통의 제작이 늘어날 것임을 제시하기 위한 근거로 삼는다.
- ⑤ 휴대용 물통 사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 휴대용 물통을 들고 다니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음을 제시하기 위한 근거로 삼는다.

8. [B]에 결론을 쓰려고 할 때, <조건>에 맞추어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조 건 >
- '휴대용 물통 사용의 활성화'에 따른 기대 효과를 언급할 것.
 - 내용 전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조의 방법을 사용할 것.

- ① 앞의 해결 방안들을 실천한다면 일회용 컵 사용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일회용 컵을 만들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감소되고 쓰레기도 줄일 수 있어 환경 보호에 효과적일 것이다.
- ② 이처럼 휴대용 물통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컵보다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물통을 선택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 ③ 정리해 보면, 휴대용 물통 사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휴대용 물통 사용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휴대용 물통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의 환경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 ④ 이러한 해결 방안이 마련된 뒤에는 휴대용 물통의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측면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휴대용 물통 사용에 대한 혜택과 휴대용 물통의 안전성이 알려진다면 휴대용 물통 사용은 활성화될 것이다.
- ⑤ 이와 같은 방안을 실천한다면, 편리하지만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회용 컵 사용은 줄어들고 불편하지만 환경을 보호하는 휴대용 물통 사용은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휴대용 물통 사용의 활성화는 우리들에게 친환경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9 ~ 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과제]
 지난 일 년의 학교생활을 돌아보고, 기억에 남는 의미 있는 활동에 관한 글을 써 보자.

[학생의 글]
 학기 초에 우연히 복도 게시판에서 '체력 증진 멘토링 교실' 참가자를 모집하는 공고문을 보았다. '체력 증진 멘토링 교실'은 스포츠 재능 나눔 동아리가 체력을 키우고자 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었다. 평소 체력이 약한 편이었던 나는 학교생활을 하면서 피곤함을 자주 느껴 체력을 길러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 그런데 망설임 없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체력 증진 멘토링 교실'은 6개월간의 장기 프로그램으로, 점심 시간에 30분씩 학교 체육관에서 ㉡ 진행하였다. 처음 2주간은 멘토와 함께 가볍게 배드민턴을 하면서, 이를 통해 서로 호흡을 맞추고 신체 활동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이후에는 유연성과 근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 동행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지구력 향상을 위해 오래달리기와 같

은 운동을 했다.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근력 운동이었다. 단순한 동작을 반복하다 보니 지루하고 힘들어서 중간에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 결국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프로그램에 끝까지 참여할 수 있었다. 이런 나의 생각을 알게 된 멘토는 경쾌한 음악을 들으면 즐겁게 운동할 수 있다고 조언해 주었다. 그래서 나는 근력 운동을 할 때,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지루함을 덜 수 있었다. 또 근력 운동을 함께한 멘토의 응원에 힘입어 더욱 힘을 낼 수 있었다.
 6개월간의 대장정을 마친 후 나에게서 큰 변화가 있었다. 처음에는 윗몸 일으키기를 열 번 하는 것도 힘들어 했었는데, 이제는 마흔 번 정도는 거뜰히 할 수 있을 만큼 체력이 좋아졌다. 그 결과 학교에서 측정한 체력 평가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보다 더 좋은 급수를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체력이 향상되니 학교생활을 하면서 피곤함을 덜 느끼게 되었고, 수업 시간에도 졸지 ㉤ 알게 더 집중할 수 있었다. '체력 증진 멘토링 교실'은 끝났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운동하여 지금의 체력을 유지해야겠다.

9. 다음은 학생이 글을 쓰기 위해 고려한 내용이다. '학생의 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체력 증진 멘토링 교실'에서 체험한 내용을 순차적으로 제시해야겠어. ①
- '체력 증진 멘토링 교실'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항목별로 안내해야겠어. ②
- '체력 증진 멘토링 교실'에 참여하게 된 동기를 밝히면서 글을 시작해야겠어. ③
- '체력 증진 멘토링 교실'에 참여하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그것을 이겨냈던 경험을 제시해야겠어. ④
- '체력 증진 멘토링 교실' 참여 이전과 이후의 차이를 제시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드러내야겠어. ⑤

10. ㉠ ~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문장의 연결 관계를 고려하여 '그래서'로 바꾼다.
- ② ㉡: 문장 성분 간의 호흡을 고려하여 '진행되었다'로 고친다.
- ③ ㉢: 단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병행'으로 바꾼다.
- ④ ㉣: 문맥을 고려하여 그 문단의 끝부분으로 옮긴다.
- ⑤ ㉤: 연결어미가 적절하지 않으므로 '앞도록'으로 고친다.

11. <보기>를 참고하여 철수에게 해 줄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 국어의 단모음 체계

혀의 높이(입의 개폐) 입술의 모양	혀의 최고점 위치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고모음(폐모음)		ㅣ	ㄱ	ㅡ	ㅈ
중모음(반개모음)		ㅑ	ㅕ	ㅗ	ㅛ
저모음(개모음)		ㅓ	ㅗ	ㅜ	ㅟ

철수: 영화야, 넌 ‘개’와 ‘개’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발음할 수 있니? 난 잘 안 돼서 말할 때마다 머뭇거리게 돼. 어떻게 하면 좋을까?

- ① ‘개’를 발음할 때는 ‘개’와 달리 입술을 둥그렇게 오므려야 해.
- ② ‘개’를 발음할 때는 ‘개’에 비해 입을 더 크게 벌려서 혀의 높이를 낮추어야 해.
- ③ ‘개’를 발음할 때는 ‘개’와 달리 소리 내는 동안 입술과 혀를 움직이지 말아야 해.
- ④ ‘개’를 발음할 때는 ‘개’에 비해 입술을 더 평평하게 하고 입을 조금만 벌려야 해.
- ⑤ ‘개’를 발음할 때는 ‘개’와 달리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있다는 느낌으로 발음해야 해.

12. <보기>는 단어의 의미 관계에 관한 수업 자료의 일부이다. <보기>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유의 관계에 있는 ‘기르다’, ‘키우다’, ‘먹이다’의 쓰임 비교
(두 단어가 결합 가능하면 ○, 그렇지 않으면 ×)

	기르다	키우다	먹이다	
돼지를	○	○	○ ㉠
감나무를	○	○	× ㉡
인내심을	○	○	× ㉢
수업을	○	×	× ㉣
첨단산업을	×	○	× ㉤

- ① ㉠의 경우 ‘기르다’, ‘키우다’, ‘먹이다’는 모두 ‘사육하다’를 대신해 쓸 수 있다.
- ② ㉡의 경우 ‘기르다’와 ‘키우다’는 ‘재배하다’를 대신해 쓸 수 있다.
- ③ ㉢와 ㉣를 보면 ‘키우다’는 ‘기르다’, ‘먹이다’와 달리 추상적인 의미를 지닌 말과 결합하여 쓸 수 있다.
- ④ ㉣의 경우 ‘기르다’는 ‘깎다’와 반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⑤ ㉠~㉣를 보면 ‘기르다’는 ‘먹이다’에 비해 ‘키우다’와 더 많은 상황에서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다.

13. <보기>의 ‘뜨개질’과 단어의 구조가 동일한 것은?

< 보 기 >

‘뜨개질’의 형태소를 분석해 보면 ‘어근+ 접미사+ 접미사’의 구조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는 동일한 층위에서 결합된 것이 아니라 계층적으로 결합된 것이다. 즉, 어근 ‘뜨-’에 접미사 ‘-개’가 붙어 먼저 ‘뜨개’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다시 접미사 ‘-질’이 붙어 ‘뜨개질’이 된 것이다. 따라서 ‘뜨개질’은 ‘(어근+ 접미사)+ 접미사’의 구조로 된 파생어이다.

- ① 싸움꾼 ② 군것질 ③ 놀이터
- ④ 병마개 ⑤ 미닫이

14. <보기>를 바탕으로 ‘주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지난 토요일에 ㉠ 사촌 동생이 왔다. 뭘 할까 고민하다 ㉡ 사촌 동생에게 미술관에 가자고 했다. ㉢ 지하철이 있었지만, 한 정거장이라 걸어가기로 했다. 재미있게 놀다 오라고 하시며 ㉣ 어머니께서 용돈을 주셨다. 걷다 생각해 보니, ㉤ 우리가 함께 노는 것도 오랜만이었다. 다들 바빠서인지 ㉥ 친척도 서로 만나기가 쉽지 않은 듯하다.

- ① ㉠, ㉡, ㉤을 보니, 주어는 ‘무엇이 어찌한다/어떠하다’에서 ‘무엇이’에 해당하는군.
- ② ㉠과 ㉡을 비교해 보니, 서술어의 자릿수에 따라 주격 조사의 형태가 달라지는군.
- ③ ㉢을 보니, 문맥상 주어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경우에는 주어 가 생략되기도 하는군.
- ④ ㉣과 ㉤을 비교해 보니, 자음 뒤에서는 ‘이’, 모음 뒤에서는 ‘가’가 주격 조사로 쓰이는군.
- ⑤ ㉤을 보니, 체언뿐 아니라 명사절도 주어 가 될 수 있군.

15.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간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시제와 동작상이 있다. 시제는 화자가 말하는 시점인 발화시와 동작이나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인 사건시의 관계에 따라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로 나뉜다. 동작상은 발화시를 기준으로 동작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인데,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표현하는 진행상과 동작이 이미 완결되었음을 표현하는 완료상이 있다.

어머니 : 방 정리를 ㉠ 하고 있구나.
 아들 : 네. 필요 없는 물건은 다 ㉡ 내놓았어요.
 어머니 : 잘 했구나. 그런데 얼마 전에 ㉢ 산 책은 어디 있니?
 아들 : 아, 그 책은 이미 다 읽어서 동생에게 ㉣ 줘 버렸어요.
 어머니 : 그래 잘 했다. 아참, 오늘 네 친구가 오기로 했지.
 아들 : 네. 조금 있다 저하고 같이 ㉤ 공부할 친구가 오기로 했어요.
 어머니 : 그래. 깨끗한 방에서 친구랑 재미있게 놀면 되겠구나.

- ① ㉠ : '-고 있구나'는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② ㉡ : '-았-'은 사건시가 발화시에 앞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③ ㉢ : '-ㄴ-'은 발화시가 사건시에 앞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④ ㉣ : '-어 버렸어요'는 동작이 이미 완결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⑤ ㉤ : '-르'은 발화시가 사건시에 앞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빠른정답.

5	5	1	3	2
2	3	5	2	5
2	3	1	2	3

1. [출제의도] 토의 내용 분석하기

김○○는 대안 실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기준으로 대안을 분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전 교육과 함께 캠페인도 병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김○○는 자전거 통학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을 학교 앞 도로 상황의 측면에서 분석했으므로 적절하다. ② 손△△는 학생들의 자전거 운전 습관을 문제의 원인으로 제시한 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손△△는 이미 시행 중인 동영상을 통한 안전 교육과 함께 안전 교육 전문가를 초빙해 실습을 하자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전□□는 학생회에서 자전거 점검의 날을 지정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고 캠페인 활동을 하자는 학생 차원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 [출제의도] 사회자의 역할 이해하기

사회자가 토의 참가자의 발언이 주제에서 벗어남을 지적한 부분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문제의 원인에 대한 해결 방안과 관련한 토의 참가자의 발언을 요약 정리한 후, 이들 대안이 적절한지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사회자는 토의를 진행하기 위해 ‘김○○ 학생, 손△△ 학생, 전□□ 학생의 순서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발언을 하며 토의 참가자의 발언 순서를 지정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사회자가 다음 토의에서 구체적인 실천 계획안을 세워보자는 내용을 안내하며 토의를 마무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사회자는 전□□의 발언을 듣고 구체적인 사례를 질문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 [출제의도] 청중의 반응 분석하기

청중 1은 손△△가 말한 학생들의 자전거 운전 습관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공감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청중 2는 손△△가 말한 대안도 중요하다고 언급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청중 3은 전□□의 발언을 듣고 자전거 관리가 중요함을 새롭게 인식하고 있으므로 자신이 이전부터 중시했던 생각을 보완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청중 1과 청중 2는 모두 안전 교육이 필요하다는 측면에 동의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청중 3은 자전거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겠다는 행동 변화가 나타나지만, 청중 2에는 행동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4. [출제의도] 발표 준비 이해하기

학생들의 대화 내용에서는 발표 과정에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생각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ㄱ, ㄴ ‘학생 2’ 첫 번째 대화에서 발표의 목적 및 청중의 배경지식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ㄷ ‘학생 1’의 두 번째 대화에서부터는 수집한 자료 중에서 주제에 맞게 선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5. [출제의도] 발표에 사용한 말하기 전략 확인하기

㉠에서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한 것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은 발표자가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여 청중의 관심을 이끌어 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은 ‘한국은행’이라는 자료의 출처를 밝혀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은 구체적인 수치를 사용해 발표 내용의 이해를 돕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은 청중의 동참을 유도하여 기대 효과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6. [출제의도] 글쓰기 계획하기

협동 작문의 초고를 작성하기 위한 모둠원 학생들의 대화 내용 중 모둠원 2 학생이 이야기하고 있는 ‘휴대용 물통을 직접 사용하면서 좋았던 점’을 제시하는 내용은 협동 작문의 초고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 협동 작문의 초고 내용 중 ‘음료 판매점 등에서 사용하고 버려지는 일회용 컵은 우리나라에서만 연간 130억 개 이상이라고 한다.’라고 언급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 협동 작문의 초고 내용 중 ‘휴대용 물통을 계속 들고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과 사용 후 세척의 어려움’이라고 언급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 협동 작문의 초고 내용 중 ‘소비자들은 휴대용 물통에 뜨거운 물이나 음료를 넣으면 환경호르몬 물질이 배출되어 건강을 해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휴대용 물통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언급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 협동 작문의 초고 내용 중 ‘또한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휴대용 물통에서 환경호르몬 물질이 검출되지 않거나 검출되더라도 미량이 검출되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한다.’라고 언급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7. [출제의도] 작문 과정에서 자료 활용하기

‘휴대용 물통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음료 가격 할인과 같은 혜택을 제공해야 함을 제시하기 위한 근거로 삼는다.’라는 언급은, <보기>에서 휴대용 물통 사용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 2011년 이후에 휴대용 물통의 사용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보기>에는 휴대용 물통에 대한 안전성과 관련한 내용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보기>에는 음료 판매점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내용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보기>에는 친환경 소재의 휴대용 물통의 제작과 관련한 내용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보기>에는 휴대용 물통 사용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음과 관련한 내용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8. [출제의도] 조건에 따른 표현의 적절성

‘휴대용 물통 사용의 활성화는 우리가 친환경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라는 언급에서 기대 효과를, ‘편리하지만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회용 컵 사용은 줄어들고 불편하지만 환경을 보호하는 휴대용 물통의 사용은 늘어날 것이다.’라는 언급에서 대조의 방법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① ‘앞의 해결 방안들을 실천한다면 일회용 컵 사용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라는 언급을 통해 ‘휴대용 물통 사용의 활성화’에 따른 기대 효과를 드러내고 있으나, 대조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② ‘휴대용 물통 사용의 활성화’에 따른 기대 효과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이러한 노력은 우리의 환경을 지키는 게 기여할 것이다.’라는 언급을 통해 ‘휴대용 물통 사용의 활성화’에 따른 기대 효과에 대한 내용은 진술하고 있으나, 대조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휴대용 물통 사용의 활성화’에 따른 기대 효과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9. [출제의도] 글을 쓰기 위해 고려한 내용 파악하기

멘토링 교실 참여 자격 항목별 안내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① 멘토링 교실 체험 내용을 순차적으로 제시했으므로 적절하다.
- ③ 멘토링 교실 참여 동기로 시작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④ 멘토링 교실에 참여하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그것을 이겨냈던 경험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⑤ 멘토링 교실 참여 전과 후의 차이가 제시되고, 프로그램의 효과가 나타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10. [출제의도] 교쳐 쓰기의 적절성 파악하기

연결어미 ‘-도록’은 ‘-게 하기 위하여’의 뜻을 나타내므로 ‘않도록’으로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① 문장의 연결 관계 상 앞 내용이 뒤 내용의 원인근거가 되므로 ‘그래서’가 적절하다.
- ② 문장 성분의 호응 관계 상 ‘멘토링 교실’이 주어이므로 여기에 어울리는 서술어로는 ‘진행되었다’가 적절하다.
- ③ 단어의 의미상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행함’의 의미이므로 ‘병행’이 적절하다.
- ④ 문맥을 고려할 때 해당 문단의 끝부분으로 읊기는 것이 적절하다.

11. [출제의도] 국어의 단모음 체계를 이해한다.

‘ㅏ’는 전설평순저모음, ‘ㅓ’는 전설평순중모음으로 둘은 ‘혀의 높이(입의 개폐)’에 의해서만 구분된다. 저모음은 입이 크게 열려서 혀의 위치가 낮은 것으로 ‘개모음(開母音)’이라고도 하며, 중모음은 그보다 입이 더 열려서 혀의 위치가 중간인 것으로 ‘반개모음(半開母音)’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개’를 발음할 때는 ‘개’에 비해 입을 더 크게 벌려서 혀의 높이를 낮추어야 한다.

12. [출제의도] 단어의 의미 관계와 쓰임을 안다.

‘키우다’뿐 아니라 ‘기르다’도 ‘인내심’이라는 추상적 의미를 나타내는 말(추상명사)과 결합할 수 있다.

[오답풀이] ‘기르다’, ‘키우다’, ‘먹이다’는 ‘돼지를 키우다’에서

와 같이 ‘(동물)을 사육하다’는 공통 의미를 가지는 유의 관계에 있다(①). 그런데 유의어는 그 의미가 비슷하지만 똑같지는 않아서, 쓰임에 따라 의미 관계가 달라지기도 한다. 예컨대, ‘기르다’와 ‘키우다’는 ‘감나무’ 같은 식물을 가리키는 말과 결합하여 ‘재배하다’는 의미로 쓰이며(②), ‘인내심’ 같은 단어와도 결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먹이다’에 비해 유의 관계의 폭이 넓다(⑤).

13. [출제의도] 파생어의 구조를 이해한다.

‘싸움꾼’은 어근 ‘싸우-’에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꾼’이 결합하여 ‘싸움’이 되고, 여기에 다시 ‘어떤 일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더하는 접미사 ‘-꾼’이 결합된 말로, [(어근+접미사)+접미사]의 구조로 되어 있다.

[오답풀이] ② ‘군것질’은 [(접두사(군-)+어근(것)) + 접미사(-질)]의 구조로 된 파생어이다. ③ ‘놀이터’는 [(어근(놀-)+접미사(-이))+어근(터)]의 구조로 된 합성어이다. ④ ‘병마개’는 [어근(병)+어근(막-)+접미사(-애)]의 구조로 된 합성어이다. ⑤ ‘미담이’는 [(어근(밀-)+어근(담-))+접미사(-이)]의 구조로 된 파생어이다.

14. [출제의도] 주어의 의미와 기능을 이해한다.

주격 조사 ‘께서’는 주어(주체)가 높임의 대상일 때 붙는 것으로, 서술어의 자릿수와는 상관이 없다.

[오답풀이] ① 주어는 서술어의 주체를 나타내는 말로, ‘무엇이 어찌한다’에서 ‘무엇이’에 해당한다. ③ ㉠에서는 서술어 ‘했다’의 주어가 문맥상 ‘나’임이 분명하므로 생략되었다. ⑤ ‘친척도 서로 만나기’는 명사절로 그것이 포함된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

15. [출제의도] 시간 표현을 이해한다.

‘산 책’에서 ‘산’의 ‘-ㄴ’은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ㄴ’은 사건시가 발화시에 앞선다고 할 수 있다.